

# 중랑구 최다 실적 604만원 인센티브... 용산구 최하위 불명예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사업 평가

최우수·우수·장려 차등 인센티브 상위 3개구, 중랑(양천)도봉(하위) 3개구, 용산(강서) 동대문(하위)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 추진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중랑구가 에코마일리지 추진 사업 실적이 가장 좋은 자치구로 뽑혀 604만원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이란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한 가정·학교·기업에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은 마일리지를 모아 세금 납부,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사막 나무심기 기부 등 저탄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시에 의하면 2009년 에코마일리지 도입 당시 36만여명이었던 회원

〈2020.10 ~ 2021.9 에코마일리지 사업 추진 실적 평가〉

/서울시

등급	자치구	총 점수 (108점)	개인회원 30점 (가산점 +3점)	가구회원 20점 (가산점 +3점)	단체회원 20점 (가산점 +2점)	아파트, 다소비사업장 (30점)
최우수	중랑구	98.9	31.0	21.0	22.0	24.9
최우수	양천구	92.7	30.0	21.0	18.4	23.4
최우수	도봉구	92.2	31.0	21.0	19.5	20.7
최우수	종로구	86.9	31.0	16.9	21.0	17.9
우수	강동구	83.1	24.9	17.2	21.0	20.0
우수	강북구	82.3	24.9	14.6	12.7	30.0
우수	동작구	78.2	24.6	13.9	9.8	29.9
우수	구로구	71.6	18.0	10.4	16.3	26.9
우수	관악구	66.7	18.0	10.4	21.0	17.4

수는 지난해 10월 약 216만명으로 6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9월 기준 224만 734명(개소)으로 전년 10월 216만 9884명(개소) 대비 3.27% 늘었다. 해당 기간 개인 회원은 209만 1128명에서 215만 7050명으로 3.15%(6만 5922명) 많아졌고, 단체 회원은 7만 8756개소에서 8만 3684개소로 6.26%(4928개소) 증가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단지와 에너지다소비사업장 82개소가 이번에 에코마일리지 회원으로 신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파트단지, 주상복합, 다소비사업장 4102곳 중 3531곳이 가입해 누적 가입률은 86.08%에 달한다. 현재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

493곳 중 419곳(84.99%)이 가입한 상태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회원(30점+가산점 3점), 가구회원(20점+가산점 3점), 단체회원(20점+가산점 2점),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30점) 가입 실적을 평가 항목으로 삼아 점수를 매겨 에코마일리지 사업 추진 실적이 좋은 자치구들을 가려냈다.

평가 결과 중랑구가 98.9점을 받아 1위를 기록했고, 양천·도봉·종로구는 각각 92.7점, 92.2점, 86.9점을 받아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최우수 자치구 중 1위인 중랑구에 604만원을, 2~4위에는 568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강동구(83.1점), 강북구(82.3점), 동작구(78.2점), 구로구(71.6점), 관악구(66.7점)는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각각 284만원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용산구는 총점 108점 중 20.3점을 받아 실적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어 강서구(23.5점), 동대문구(27.1점),

은평구(28.4점), 금천구(29.8점)가 30점을 밑돌며 하위 20%에 들었다. 이들 자치구를 포함해 나머지 16개구는 장려구로 142만원씩을 받게 된다.

해당 인센티브는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활성화 사업비, 홍보비, 활동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평가 분야를 기존 7개(개인, 가구, 단체, 아파트단지·다소비사업장 회원가입 실적, 기관장 관심도, 회원정보 정비실적, 홍보실적)에서 4개(개인, 가구, 단체, 아파트단지·다소비사업장 회원가입 실적)로 축소하고 평가 횟수를 상·하반기 연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11월 1일 평가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고 같은 달 5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중순까지 인센티브 정산 결과를 시에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청년 자산형성·경제자립 도와드려요”

### 서울시 ‘청년점프’ 정책 추진

년 10만원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지원

서울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점프’ 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점프 정책은 ▲무료 재테크 교육·상담으로 청년 자산형성 기회를 돕는 ‘서울 영테크’ 진행 ▲학습·취업 지원을 위한 연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지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청년 일자리’ 제공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갖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만 19~39세 청년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일대일 재무상담과 시의성 있는 재테크 금융 교육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무료로 제공한다.

각자의 재무 목표와 개인의 성향을 고려해 재테크, 돈 관리, 부채 관리법 등을 맞춤형으로 상담해주고,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 초기 자산 관리법에 대해 알려준다. 금융위기극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기발견·신속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시는 11월부터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시작한다.

청년들이 전자책, 논문 등 디지털 콘텐츠를 학습과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만 19세~39세 서울시민에게 1인당 연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를 지원한다.

시는 소프트웨어(한글, PPT, 엑셀), 전자책, 논문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2022년 구축하고, 연 10만원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4개 분야(크리에이터, 제조웨이스트, K-뷰티·헬스, 로컬셀러)의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개월의 일 경험과 직무 교육을 병행해 청년들의 구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시킨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3000억 ‘4無 안심금융’ 용자 지원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중이서류)

소상공인 업체 한 곳당 최대 1억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 용자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4무 안심금융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중이서류를 골자로 한 긴급 용자 지원 사업이다.

시는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를 위해 6월부터 2조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한 결과 1조 9569억원(98%)의 용자가 지원돼 소진이 임박, 3000억원을 더 수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도 심사를 받은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신용평점 595점 이상, 舊



지난 6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뉴스1

7등급 이상),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며, 총 용자 기간은 5년이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02곳 참여

연내 25개소 내외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공공이 정비사업을 지원해 속도를 내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102곳이 참여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재

개발 후보지 공모에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102곳이 지원했다.

각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표), 관계부서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해 민간재개발 공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추려 시에 추천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구가 추천한 구역을 검토한 뒤 연내 25개소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 이듬해 자치구에서 바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7 | 해질 / 17:34

11월 1일 (월)  
음력: 9월 27일

수도권 날씨  
11 ~ 16°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8/15, 동두천 9/16, 가평 7/15, 파주 8/16, 서울 11/16, 양평 9/16, 양문 11/15, 수원 11/15, 평택 9/16, 인천 11/15, 백령도 11/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70억 회분 돌파  
▲ 北, 신포에서 SLBM 시험발사 준비... 38노스, 위성사진 분석 /사진 뉴스1



▲ 시진핑, G20서 공급망 안정성 관련 국제포럼 제안 /사진 뉴스1  
▲ 수단軍, 시위대에 실탄 사격... 최소 3명 죽고 110여명 부상

▲ G20, ‘최저 15%’ 글로벌 법인세 승인  
▲ 아프리카 말리서 연쇄 테러공격... 정부군 7명 사망